

순천시 '와온' 전국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

전남에서 유일... 내년 사업비 3500만원 추가 확보 공동체 규약 만들어 어장·수산자원 등 체계적 관리

순천시 '와온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이하 와온)'가 최근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4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와온'이 우수공동체에 뽑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위원회는 전국 1138개 공동체 중 각 지자체로부터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 13개소를 추천받아 현지 확인·점검 후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4개소(경기·강원·전남·경북)에 대하여 우수공동체를 최종 선정(최우수 1, 우수 1, 장려 2)했다. '와온'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장관 표창 수여와 함께 내년도 사업비 350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 자율관리어업은 정부 주도의 관리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공동체를 결성해 수산자원과 어장을 보전 및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활동이다. 현재 순천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11개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고, 2015년에는 해양수산부 주관 제12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성공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영 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동체 평가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와온 공동체는 2009년 7월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해 공동

체 스스로 규약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어장 및 자원관리, 공동생산 및 판매 등 자율적 공동체원 참여의식을 증가시켜 살기 좋은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다. 특히 자체설정 체포제장 제한, 어장 휴식년제(2년마다 윤번제), TAC 생산량 규제, 유해 생물 규제, 어장청소 등 수산자원 개체수 보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실천했다. 이와 함께 꼬막 등 수산산물을 방류하는 자원조성사업 추진, 특산물 판매장 운영 등을 통한 수산물 공동생산·운영·판매로 공동체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금년까지 총 4회, 국비 포함 3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종패삽포(꼬막, 새꼬막) 사업을 추진했고, 2년 간 채취 제한하여 종패 보호에 힘쓰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이 국화로 가을맞이에 한창이다.

순천만국가정원서 가을정취 만끽하세요

다채로운 국화 등으로 새단장 스페이스허브 최고 포토존 인기

순천만국가정원이 가을을 맞아 새 모습으로 단장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현재 다채로운 국화와 다양한 가을꽃들로 가득 채워져, 방문객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가을의 대표적인 꽃인 국화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사랑받아 온 꽃으로, 우아하고 풍성한 꽃잎이 가을의 정취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이번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국

화가 각기 다른 색상과 형태로 배치되어, 정원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향기를 선사한다. 가을맞이 준비로 국화, 포인세티아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가을꽃들로 정원을 새롭게 연출하고 있다. 특히 스페이스허브는 중앙 잔디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강렬한 포인세티아가 길게 이어져 있어,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최고의 포토존으로 주목받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해 아름다운 꽃들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가을바다 추억 만들기...여수 여자만 갯벌노을체험행사

21~22일 바지락 캐기 등 행사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로

"바닷길 걷고, 바지락 캐고, 노을 감상하며 아름다운 추억 남기세요." 제15회 여수여자만 갯벌노을체험행사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소라면 해변이길 일원에서 개최된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무사안녕과 풍어를 비는 '당산제·풍어제'를 시작으로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대나무 망둥이 낚시', '맨손고

기잡이 체험', '바지락 캐기 체험', '가족 명랑운동회'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무엇보다 여수 여자만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 갯벌노을체험행사의 특징이다. 특히 장척마을과 북개도 사이에 열리는 바닷길 500m를 걷는 '북개도 가족사랑 걷기'와 '보물찾기 체험'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노을 사생대회'와 '노을 댄스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노을가요제', '노을 갯벌 페이스페인팅', '스티커 타투', '캘리그래피', '플로깅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누구나 참여

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행사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축제장은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의 일환으로 행사장 내 음식·음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에 제공되며, 사용 후 수거 지점에 반환하면 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마련했다"며 "친환경 축제 문화 정착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해 주시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 전남 마을공동체 최우수상 공동체 밥상·공동판매 호평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최근 '2024 전남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 마을공동체 우수사례'상은 공동체 조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지역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여 타 공동체에 모범이 되는 가장 우수한 마을 공동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삼태마을은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밥상'을 상시 운영하고 자체 돌봄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마을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삼태마을은 지난 2021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현재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서 주목할 점은 젊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특히 남성 주민들이 주 1회 밥상을 준비하며 평등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공동체 밥상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공유는 면적을 400평에서 900평으로 확대했고, 올해 새로 조성한 마을 뒷밭에서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며 식재료 자급률을 높이고 있다. 또한 경제적 자립도 모색하고 있는 점이다. 공유 논에서 재배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한 방풍나물 판매를 시작해 올해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마을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 소멸되어가는 농경 문화 전승을 위한 대보름 행사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 삼태마을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특히 공유농장을

통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 향상, 귀농·귀촌인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 그리고 자체 조직 '삼태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문화 확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태마을 이장은 "주민 각자가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함께 즐겁고 행복한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 지켜갈 수 있는지 깨닫고, 지속 가능한 자립 공동체와 문화가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곡성군, 숨은 '유기농 명인' 찾는다

벼·과수 등 분야...30일까지 접수

곡성군이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유기농업 분야에서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한 저비용 유기농 선도기술 체계화에 앞장선 농업인을 선발하여 우대·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 분야는 벼·밭작물·과수·채소·축산·기타 등 총 6개 분야다. 지원 자격은 재배면적 3,300㎡ 이상 수 있는 지 깨닫고, 지속 가능한 자립 공동체와 문화가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를 구비해 농정과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 과정은 서면 평가와 현지실사를 거쳐 유기농업 경력과 특장적 농업 개발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전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기농 명인으로 선정되면 홍보안내판 제공, 전남도 유기농 명인 상표 '명인드림' 사용권, 유기농 명인 지원 사업 등 유기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보성군 북성현 한마을 대축제가 20일 검백면 가림뜰에서 열린다. 제16회 북성현 축제 모습.

보성군 북성현 한마을 대축제 내일 개최

전통 민속놀이·체육 행사

1000년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보성군 '제17회 북성현 한마을 대축제'가 20일 검백면 가림뜰에서 개최된다. '북성현 한마을 대축제'는 고려시대부터 1000년 동안 이어온 북성현의 유구한 전통을 계승하고, 검백면·울어면·북내면·문덕면 북부 4개 면민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시작된 축제다. 특히 북성현은 고려 태조 때부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다례와 차 문화, 불교 유적 등을 자랑한다. '북성현에서 꽃피우는 보성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이러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체육 행사·문화 공연·특산물 전시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는 식전행사를 비롯한 라인댄스 공연·길쌈놀이·보성군립극단의 전통 공연으로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이후 북부 4개 면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자를 선정해 '북성현의 상' 시상식이 이뤄진다. 오후에는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율놀이 등 4종의 민속놀이와 면민 노래자랑이 검백면 가림뜰과 게이트볼장에서 펼쳐진다.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축하공연에는 초청 가수들의 흥겨운 무대와 함께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북부 4개 면의 특산물 홍보 부스 판매를 통해 지역민들의 화합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의 지역 상권 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북성현한마을대축제추진위원회 이응금 위원장은 "보성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며,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군 인재육성장학생 선발 대학생 등 60명...25일까지 신청

구례군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도 하반기 군 인재육성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당사자나 보호자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 미만의 학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꿈 드림 장학금'은 당해연도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올해 선정 인원은 9명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11월 중 군 인재육성심의회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발표할 예정이며, 대학생 36명(최대 200만 원), 고등학생 15명(최대 150만 원), 청소년 꿈 드림 9명(각 30만 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평생교육과(061-780-2803)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치유의 섬 광양 배알도서 수변축제

21일...시식·음악회·토코쇼 '치유 메카' 주제 다양한 행사

'2024년 광양 배알도 수변축제'가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광양시 태인동 배알도 수변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광양 배알도 수변축제는 '광양시 청년단체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광양시향토청년회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를 통해 광양 배알도를 마을과 풍경이 만나는 쉼터, 영혼의 휴식을 선사하는 대한민국 치유 명소로 만들어 지속적인 문화관광콘텐츠 발굴 및 사업실행으로 광양 관광 1천만 명 시대를 열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대한민국 수변섬치유 메카 광양배알도'란 주제로 ▲치유시식회 ▲치유 음악회 ▲치유토코쇼 ▲광양 캘리그래피 손수건 만들기 ▲생수 팔리 마시기 ▲생수키' 선발대회 ▲남파랑길 49코스 광양만 역사로드 걷기 ▲국보 제103호 광양중흥산성상사 자석등 제작리 찾기 기원 줄다리기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이 운영된다. 프로그램 중 '치유시식회'는 수변공원 섬 정원에서 먹으면 좋은 음식을 소개하고 무료 시식 행사를 갖는다. '치유토코쇼'는 망덕포구, 배알도, 운동주 유교보존 정병육가옥, 광양김시식지, 진월전어잡이 소리, 용지르줄다리기 중심의 섬진강권 자연환경·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숨은 이야기를 풀어 참가자에게 색다른 치유 경험 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 이벤트로 보물찾기와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나눠주고 기념품도 무료 증정할 계획이다. 서지만 광양시향토청년회 회장은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 쉼과 낭만을 불어넣는 치유 공간 배알도가 대한민국 수변섬치유 메카로 발돋움하고 더 많은 추억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많이 오셔서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영 광양시 청년일자리과장은 "배알도 수변공원·섬정원이 있는 섬진강권은 광양시가 관광거점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곳이다"며 "광양 청년들이 지역 자연환경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 발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